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대상화된 전형화를 넘어서기

박소영*

¹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Qualitative Research on Women Marriage Immigrants' Marital Life: Beyond Objectified Typification

So-Young Park^{1*}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결혼생활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Giorgi의 현상론적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여성결혼이주민의 결혼생활 경험의 의미는 '사랑, 그 다양한 빛깔의 끌림', '남편, 참 좋은 사람', '맞닥뜨린 현실', '자녀, 안정과 기쁨 그리고 버거움', '한국 아줌마처럼 살아내라는 남편', '부대끼고 아련한 시부모와 친정부모', '결혼은 나의 힘: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 '결혼생활을 넘어 공동체로' 이렇게 8가지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결혼생활의 의미는 사랑에 끌려 결혼한 참 좋은 사람과 낯설고 두렵지만 부대끼면서 한국 아줌마처럼 살아나가기였다. 이는 결혼이민자를 대상화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전형화를 넘어서는 결과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marital life from the poin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methodology by Giorgi. Results showed that the meaning of marriage life were 'love, the attraction of various colors', 'husband, really good person', 'the reality', 'child: stability, pleasure and hardship', 'husband demanding Korean women's life', 'difficult and good in-laws', 'marriage is my power', 'community beyond marriage life'. The meaning that participants experienced was living like Korean woman with really good husband in unfamiliar and afraid society. This meaning was beyond the objectified negative typification of women marriage immigrant.

Key Words : Women Marriage Immigrants, Marital Life, Typification,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266,547가구이며 결혼이민자는 283,224명으로, 이 중 여성이 226,08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1].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하면 7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우리 사회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위시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 신화에 기반 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결혼이주민은 우리 사회에 동화되기만을 요구당한 채 제대로 적응하고 통합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2]. 또한 그동안 여러 지원 대책 역시 다문화가족을 일반가족과 분리시키면서 대상화 한 측면이 있다. 즉, 다문화가족이나 여성결혼이

본 논문은 2012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Park(Semyung Univ.)

Tel: +82-10-7186-4662 email: nillyria@semyung.ac.kr

Received January 19, 2015

Revised (1st February 17, 2015 2nd February 26, 2015, 3rd February 27, 2015)

Accepted March 12, 2015

Published March 31, 2015

민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일반 가족이나 한국 기혼여성과의 구별하고 차별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들 역시 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피해자로 대상화하면서 부정적인 전형화(typification)를 시킨 측면이 있다[3].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가정폭력 희생자로, 한국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결혼중개업자의 피해자로 편향되게 바라보게 했다[3]. 특히 저개발국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이주한다는 세계적 상황론(Global Hypergamy)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시각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결혼을 수단으로만 이용한 사람으로 규정짓기도 했다[4,5].

물론 타민족, 특히 서양인이 아닌 타민족에게 배타적인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자 여성으로 적응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노출되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분명히 갈등과 문제를 지녔을 것이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자 개입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만들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우선 국제결혼의 상품화 측면이 강조되면서 결혼이민자의 결혼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한 자신의 삶의 향상[6]으로 보는 연구와 다른 한편 가정폭력 희생자로 결혼이민자를 보는 연구[7,8], 결혼이민자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에 관련된 연구[9,10,11,12],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건강성,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13,14,15]으로 대별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적응 정도가 낮게 제시되었다[9,10,11].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문화차이,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문제, 남편과의 사고방식 차이, 남편의 폭력, 시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요약 된다[7]. 송연옥은 결혼기간 짧을수록, 가족중심가치관을 가질수록, 한국어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 결혼만족도 높았다[11].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와 달리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1]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만족도는 매우만족 45.2, 만족25.7, 보통 25.3, 불만족2.5 매우불만족1.3%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생활만족도도 50%가 넘는 응답자가 만족(매우

만족)하고 불만족(매우불만족)하는 응답자들이 10%가 안 되었다. 이 조사결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전형화를 넘어서서,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제적인 결혼생활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가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다문화가족을 함께 아우르기 시작했다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자이거나 가정폭력의 피해자 혹은 경제적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전형화 시키지 않고, 결혼이민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무조건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 사회로 이주해서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한국 가정의 여성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의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앞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 아래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로 편입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다문화가족의 수도 70여만 명이 된 시점에서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전형화를 넘어서고자 했다. 여성결혼이주인이 결혼하는 계기나 과정은 어떠하며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해 그 어떠한 편향된 선입견도 배제한 가운데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그 삶의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질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였다.

2. 연구방법

2.1 질적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자신의 관점으로 남편과의 결혼생활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의 경험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현상학의 다양한 방법론 중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독특성을 설명하면서도 전체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통합하는 Giorgi[16]의 현상론적 방법론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경험에 대해 각 개인의 상황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전체 참여자의 일반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결혼생활이라는 현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2.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의도적 표집방법과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우선 중국과 베트남에서 온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많고, 서울과 경기도에 50% 이상 거주한다는 조사결과에 [1] 따라 중국과 베트남 출신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배우자 만남의 경로는 결혼중개업자 20.1 가족친척소개 20.1 친구 동료소개29.4 스스로 23.2%에 의해 만나게 된다는 조사결과[1]에 따라 결혼중개업자와 친구소개, 스스로 등 다양한 경로로 배우자를 만난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녀는 없는 경우에서부터 세 명에 이르기까지, 나이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6명의 연구참여자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배우자의 나이는 35세부터 55세까지였으며 직업이 있는 참여자가 3명이었으며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참여자가 1명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연구참여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2회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시간은 1회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후 바로 녹취록을 만들어 읽으면서 분석하기 시작하여 그 분석이 다 끝나면 다음 면접이나 다른 참여자를 만났다. 자료분석은 Giorgi가 제시한 4단계의 분석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12]. 첫째, 참여자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기 단계를 통해 각 참여자의 결혼생활의 의미를 우선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단계인 의미단위 구분하기에서는 다시 분석의 처음으로 돌아가 각 참여자들의 결혼생활의 의미를 작은 의미단위로 구분해 냈다. 이 때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인용할 때가 많았다. 셋째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의미단위를 보다 학문적인 용어로 변환하면서 공통적인 단위들로 묶어갔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변환된 의미단위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이라는 연구현상에 대한 구성요소로 묶어내기 단계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결혼생활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적 서술이 가능해졌다.

2.4 연구의 윤리성 및 신뢰성

질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윤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연구자에 대한 정보, 연구의 목적과 절차와 출판되는 자료에서 참여자를 알 수 있게 하는 특이 사항을 기록하지 않을 것임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면담 내용을 녹음하기 전에 반드시 참여자의 동의를 구했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으로 Guba와 Lincoln(1994)이 제시한 ‘신뢰성과 적용가능성, 일관성과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nation	age	children	spouse age	job	path to marriage	marriage yrs.	cohabitation	district
A	Vietnam	37	0	55	yes	voluntary	10	no	Kyeonggi
B	Vietnam	36	3	54	no	marriage agency	10	no	Kyeonggi
C	China	46	2	48	no	voluntary	18	no	Seoul
D	Vietnam	28	1	35	yes	voluntary	3	yes	Kyeonggi
E	China	32	2	40	yes	through friend	6	no	Seoul
F	Vietnam	27	1	42	no	marriage agency	4	no	Kyeonggi

중립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기술하고 해석한 연구인가를 알려주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료로 돌아가 반복적인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결과를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분석 과정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연구자의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한 참여자와의 면접이 끝나면 녹취록을 분석하고 거기서 도출한 주요 의미에 대해 그 다음 면접에서 참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참여자들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서울에서 6년간 생활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연구결과를 짧게 설명했다(debriefing). 그리고 연구자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결혼 이민자의 결혼생활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관점을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참여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경험의 의미를 8가지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사랑, 그 다양한 빛깔의 끌림', '남편, 참 좋은 사람', '맞닥뜨린 현실', '자녀, 안정과 기쁨 그리고 버거움', '한국 아줌마처럼 살아나라는 남편', '부대끼고 아련한 시부모와 친정부모', '결혼은 나의 힘: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 '결혼생활을 넘어 공동체로', 이렇게 8가지였다. 이 구성요소들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인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결혼생활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빛깔의 사랑에 끌려 결혼한 참 좋은 사람과 낯설고 두렵고 부대끼면서 한국 아줌마처럼 살아나가기라는 일반적인 구조적 서술을 할 수 있었다.

3.1 사랑, 그 다양한 빛깔의 끌림

다수의 참여자들은 국제결혼을 하거나, 그것도 한국으로 와서 결혼이민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국에서의 결혼생활을 꿈꾸지 않았던 참여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빛깔의 끌림으로 다가온 사랑에 이끌리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끌림은 한국인의 이미지가 좋았다든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줘서 감동을 받는 등의 호감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무언가를 채워주어야 하겠다는 느낌까지 다양하였다. 이는 경제적 이유가 결혼의 동기가 되는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는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 형태의 끌림이 있었다.

3.1.1 한국 남자와 결혼할 줄 몰랐어요

참여자 C는 중국에서 한국계 중국인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이 없었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하게 된 B도 당시 자신은 결혼 자체에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친척의 결혼중개업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아가씨들을 차로 데려다 준 후 '머릿수'를 하나 더 채워달라는 친척의 부탁을 받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C: 저도 부모 형제와 떨어져 산다는 게 그런 생각을 못해봤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결혼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혼해서 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도 주위에서 누가 말해도 난 여기도 남자들이 많은데 거기를 뭐 하러 가냐고, 또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그런 걸 별로 원치 않고 그랬어요.

B: 근데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하려 간 건 아니니까 그때는 그 업체들은 돈 벌려고 하는 일이니까, 돈 벌려는 수법이 있어요. 한국남자 1명, 베트남여자는 5명, 10명 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와야 하잖아요 여자 분이. 저보고 거기 이모가 몇 번 도와줘라. 니가 그냥 올라가서 숫자 좀 채워줘라.

3.1.2 안쓰러운 마음,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결혼 생각 없이 친척 영업을 도와주려던 참여자 B는 남편이 자기만 맘에 들어 하자 자기는 맘에 없는데 이 남자 참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너무 불쌍해서는 결혼하겠다고 승낙하고는 자신이 왜 그랬을까 자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은 사실은 남편과 선보기 전 첫 인상이 자기 말고 다른 아가씨들이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말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남편에 대한 끌림이었다.

B: 딱 보자마자 저분이 40대이지만 나이 많지만 초혼이고 총각이고 외모는 괜찮는데 저 아저씨랑 여기 사람들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저 아저씨는 불쌍하다. 오전부터 봤는데 나이도 많고 지

금까지 봤는데 나만 마음에 드는데 그 중에. 이제 저녁인데 어떻게 하지? 내일 또 봐야하는데' 하고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스럽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고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생각은 없는데 근데 거절하기에는 이 아저씨가 너무 불쌍하고 그러다 결혼할게요. 이랬어요. 결정하고 나서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마찬가지로 부모형제와 떨어지기도 싫었고 이혼하는 결혼이민자의 사례로 봐서 한국 올 생각이 없었던 참여자 B는 착하고 생활력 강한 사람이라는 남편의 성품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끌림은 남편이 뭔가 부족하여 자신이 채워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C: 그런데 보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사람이 일단 착했어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아저 남자 뭔가 2% 부족하다. 뭔가 여자가 있어야 되겠다. 뭔가 그런 게 조금 보였어요.

3.1.3 감동 주는 사람, 한국사람 좋은 이미지

다른 한편 한국 사람의 좋은 이미지로 인해서 혹은 남편에게 감동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참여자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한 참여자 D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다 결혼을 하게 된 사례였다. 처음부터 연애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D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관심과 챙김에 감동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11년 전 베트남에서 만나 1년 연애한 후 결혼한 참여자 A는 무엇보다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했다.

D: 그때 아직 연애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오빠가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고. 그때부터 계속 친구처럼 채팅하고 메일하고 갑자기 아침에 오빠 또 문자오고 일어났다. 밥 먹었냐. 점심도 뭐 하고 있냐. 저녁에도 관심을 주고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 아플 때 감기 걸리면 계속 문자 관심해주고, 여자니깐. 많이 관심해줘서 감동을 많이 받았죠.

A: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했어요 저는 거기 한국 식당 취직해서 한국어 조금 배웠잖아요. 이야기 하고 남편은 일이 있어 한국에 가고 몇 개월 살다가 또 베트남에서 쪽 살아요.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만났죠. 그냥 한국사람 이미지, 이미지가 좋았어요.

3.2 남편, 참 좋은 사람

다양한 빛깔과 모양의 끌림으로 결혼하여 결혼이민자가 된 참여자들은 남편을 참 좋은 사람으로 인식했다. 물

론 남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허니문 단계에서 더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약해진 측면은 있었지만 결혼 3년에서 18년이 경과한 참여자들 모두 연구 시점에도 남편의 좋은 점을 인식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긍정적이었다.

3.2.1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남편

참여자들은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출신국에서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하여 모두 일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데 비해 남성의 경제적 책임감이 강조되는 한국의 상황과, 생활력이 강해서 꼭 일해서 가족을 책임지려는 남편에 대해 감사했다.

F: 저희 베트남에서는 남녀평등이라서 다 같이 맞벌이 하거든요. 한국 남성들이 더 경제적으로 책임 많이 지는 게 더 사실은 좋은 거고.

E: 생활력이 강하니까 자기가 뭐 꼭 이렇게 일해야 된다고.

3.2.2 정말 잘해주는 남편

참여자들은 남편이 본인에게 잘 대해주고 배려해준다는 점을 좋아하고 있었다. 참여자 B는 남편이 헌신적이고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남편의 나이가 많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잘해주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믿고 한국으로 이주하였고, 살면서 서로 잘 해주면서 사랑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었다.

B: 그때는 좋았었죠. 저희 남편이 처음에 저희 가족하고 저를 정말 되게 잘해줬어요. 그니깐 본인이 조금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 좀 나이 많아서인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줘요. 그니깐 솔직히 저희는 연애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외국 오면 누구 믿어요. 남편만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혼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깐 저희 남편이 또 알아줘요. 근데 살면서 서로 잘해주면 사랑이 생기는 거고 그런 생각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3.2.3 법 없이도 살, 잔소리 안하는 남편

참여자는 남편의 성품이 착하고 일상생활이나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잔소리 하지 않는다는 점을 남편의 좋은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C: 그냥 남편이 착하고 둘이 법이 없이도 살겠다. 주위사람들이 큰 애 친구 엄마들이 신랑 법이 없어도 살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 집이나 우리 집이나 대소사가 다 있어도 뭐 어떻게 해도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싫은 소리 안하고

3.2.4 자상하고 로맨틱한 남편

참여자들의 남편은 퇴근이 늦으면 늦는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부부싸움 후 먼저 사과 문자를 보내는 등의 자상한 면이 있었다. 또한 생일에 직장으로 꽃을 배달시킨 다든가 하는 로맨틱한 면으로 인해 참여자는 감동을 받기도 하면서 남편을 참 좋은 사람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F: 자상해요. 문자 잘 보내고, 늦는다고 온다고 문자, 그리고 약간 다툼 있어도 먼저 화해해요, 자기가 먼저 화해해요 저보다 좀 자상해요

D: 오빠가 로맨틱해요. 제가 출근하는 동안에 생일에 갑자기 꽃을 회사에 보냈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받자마자 남자 동료들이 감동하고 네가 지금 결혼했는데 누가 이렇게 보내줬냐. 열어봤더니 메시지 봤더니 내 남편이다. 저도 감동했죠.

3.3 맞닥뜨린 현실

3.3.1 웃음이 나오는 살림살이

그런데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이 녹녹치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특히 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참여자B는 결혼할 때 혼자 생각했던 것과 입국 후 만나게 된 현실의 차이를 실감했다고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크지 않을뿐더러 남자 혼자 살던 살림살이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리도 안 되어있었다.

B: 저는 그렇게 말하니깐 집을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집은 혼자 산다 해도 깨끗한가보다 그랬었어요. 제가 막상 오니깐 웃음이 나왔어요. 아파트지만 작고, 근데 오래된 집이니깐 저희 남편이 꾸미지 않았어요. 자기 살던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김치냉장고도 없고 냉장고도 옛날 냉장고 스타일이예요. 혼자니깐, 필요 없으니깐 그냥. 혼자 남자니깐.

3.3.2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다른 한편 결혼 생활을 통해 참여자들은 타인들의 시선에서 자신을 경계하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다. 이것은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으로 낯선 나라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참여자들의 두려움이었다. 중국동포 참여자는 말투에서, 베트남 출신 참여자는 외모에서부터 차이가 나므로 이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을까 두려웠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 두려움은 더 커졌다.

C: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엄마들하고도 말하고 선생님하고도 말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딱 느낀 게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다가오는구나. 아 저 사람 나한테

조금 경계심이 있구나. 저 사람 완전히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E: 말투가 경상도가, 강원도 인가 하면서 궁금해 하다 북한에서 왔나 묻기도 하고, 안 물어보고 어떤 어르신은 북한 사람 싫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F: 나중에 학교 갈 때 엄마 달라서 숨을까봐 걱정 됨.

3.3.3 외로움과 함께 하는 일상

참여자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동시에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다. 이는 특히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심했으며,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경우 크게 외출하지 않게 되면서 외로웠다.

C: 좀 외로웠어요. 좋은 것도 있었죠. 좋으니까 또 멀리서 이렇게 왔겠죠. 예. 근데 외로웠어요. 저는 낮에 이렇게 남편이 딱 출근하고 혼자서 이렇게 집에 우두커니 텔레비전 앉아서 보고 바깥출입도 그런 별로 안했거든요.

3.4. 자녀, 안정과 기쁨 그리고 버거움

3.4.1 외로움을 없애주고 안정을 주는 자녀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을 통해 이 외로움을 없애주는 존재인 자녀를 선물 받았다. 자녀가 태어나자 마음이 안정되면서 외로움을 덜 느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서 책임감도 느꼈지만 그것은 기쁨을 누르지 못했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이 참여자들에게도 자녀는 안정감과 기쁨의 원천이었다.

C: 지금도 외로움이 있어요. 지금은 애들 있으니깐 좀 덜하지만. 큰 애 낳고 많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F: 아기 있으면 그거 뭐지 정신적으로 안정적, 애기 있으니깐 낫죠

D:결혼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내가 애기 낳았으니깐 내가 엄마가 되었으니깐 책임감이 좀 있었더라도 좋아요. 왜 좋았냐면 나 지금 엄마 되었으니깐

3.4.2 한국에서 자녀 교육의 벽참

그런데 이 안정감과 기쁨의 원천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 양육은 모든 엄마들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더해 결혼이민자 엄마들은 교육이 과열된 한국 사회에서 이주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힘들이 있었다. 처음 한글교육에서부터 공부에 관련된 것까지가 모두 힘들었다. 우리 사회의 학부모로 산다는 것은 결혼이민자든 아니든 매우 힘든 경험이라고들 하지만, 본인이 이 사회 교육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가운데 아 이들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경험이었다.

C: 제가 자라온 문화가 여기 문화하고 또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힘들거든요. 애들 지금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잖아요. 진로 문제도 그렇고 대학교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등학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제가 열정은 높아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3.5 한국 아줌마처럼 살아내라는 남편

3.5.1 집안일 신경 안 쓰는 남편

‘참 좋은 사람’인 남편은 참여자들에게 다른 측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무심하거나 무감각한 모습에 가까웠다. 남편은 가족은 남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바깥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아주 잘해주었다. 그리고 제사 같은 집안일도 참여자 혼자 준비하도록 놔두고 친구들과 모임을 하기도 했다.

A: 아빠는 집에서는 신경 안 써요, 밖에 가서는 사람한테 잘해요. 나보다 밖에 사람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제사지내는 것도 남편은 다 몰라요 저는 잘 모를 때는 남편 같이 가요. 했더니 나중에 친구 전화해서 당구 치러, 여보 미안해 너 혼자 장봐. 그래서 전 혼자 다해요

3.5.2 그냥 한국 아줌마, 슈퍼 엄마로 대해요

또 다른 남편의 모습은 참여자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한국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였다. 이는 매우 양가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선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아줌마가 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대우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이거저것 다 알아서 잘 하는 아줌마는 한국 사람도 어려운 일인데 한국에서 안 태어난 자신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기대가 큰 것처럼 여겨지고, 남편의 이러한 태도에 섭섭하고 힘들었다.

B: 저희 남편은 저를 그냥 한국아줌마처럼 대해요. 슈퍼 엄마. 다 할 수 있다고. 기대는 크고 욕심은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제가 잘 해요. 근데 저희 남편 눈에는 아니야. 그런 적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섭섭한 적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싸울 때도 많아요. 저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냐. 나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한국 사

람처럼 못하지. 할 수가 없어. 될 수도 없고, 몇 십 년 동안 베트남사람 피 흐르고 살았고 그런 적 많아요.

E: 남편이 다 맡기고 애교육도 거의 맡기는 그런 편이에요. 힘들어요. 그런 게. 어릴 때라도 좀 같이 이렇게 이끌어 줬으면 좋겠는데.

3.5.3 안 가르쳐주고 혼자 알아서 하길 기대

한국 아줌마처럼 살기를 기대하는 남편은 일상생활 부분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남편은 은행 업무라든가 동사무소 일 등 소소하지만 잘 모를 수 있는 일들을 상세한 설명도 없이 하라고 맡길 때가 많다고 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는 빨리 한국 사회의 일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도 하는 순기능은 있었지만 참여자는 섭섭하기도 했다.

C: 초창기 어느 날 돈 찾으라고 카드를 주더라고요. 비밀번호 뭐 알려주고 찾으라 하는데 뭐 어떻게 찾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거기 가면 다 알게 돼있다고 모르면 은행직원한테 물어보라고. 이제 뭘 배워야지 맨 날 물어볼 순 없겠다

3.6 부대끼고 아련한 시부모와 친정부모

결혼은 두 사람이 하지만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라는 말이 명언이라는 점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시댁과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었지만 두고 온 친정이 늘 아련하게 생각났다. 그러나 그 친정과의 관계도 남편에게는 새로 형성된 것으로, 두 원가족 모두가 참여자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3.6.1 마음을 안 여시는 시어머니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국제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터라 며느리가 탐탁하지 않았고 그래서 참여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시기도 했다. 결혼중개소를 통해 결혼을 한 경우에는 시어머니도 아들의 결혼을 원하던 바이기도 했으나 두 나라의 문화와 생활관습 차이가 커서 서로 오해를 할 때도 있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한국보다 독립적이어서 참여자는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 더 힘들 때도 있었다.

C: 어머님은 처음에 조금 마음을 안 여신거지 왜냐면 이렇게 자기 아들이 그쪽 여자랑 결혼한 거 원치 않았던 거예요.

F: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저희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도 간섭 안하는데, 또 친정 엄마들이 맞벌이 애들 키워주고, 그래도 딸 부부 일에 간섭 안하고.

3.6.2 터놓고 얘기하는 고부

그러나 참여자들 중에는 시어머니와 긍정적인고 솔직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히려 외국인 며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다. 즉, 시어머니도 외국인 며느리를 가르친다는 관점에서 자신의 감정과 서운한 점을 말하고 오해를 풀고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자 역시 다른 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물어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는 자세가 있어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기도 했다.

D: 어머니도 솔 한 잔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말하고, 서운하신거 있으면 말하고, 나도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러면 문제없어요, 우리한테 젊은 너네 재밌게 지내라고 하시고

3.6.3 친정부도, 아련한 마음

참여자들 중에는 친정에 거의 가지 않고 통화만 자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친정식구들이 한국으로 방문하거나 이주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친정엄마가 와서 보살펴주시기도 하고 아예 자녀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에서 장기 체류했다. 그래도 친정을 자주 못간다는 미안하고 아련한 마음에 아이들 사진을 때마다 찍어 보내기도 했다.

C: 애 있고나서는 애한테 많이 할당하니깐 또 엄마 생각이 좀 덜했어요. 그래도 항상 애들이 크면서 그런 모습을 바로바로 못 보여주잖아요. 사진을 막 엄청 많이 찍었어요.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계속 보냈었어요.

E: 1년에 한번 씩 갔어요. 엄마가 여기 한 번 오셨었어요. 3개월 비자로 왔다갔다.

D: 제가 얘기 낱았을 때 엄마가 와서 한 달 살았어요. 도와주시고. 요즘에 인터넷 스마트폰 편하니깐 채팅이나 동영상해요.

3.6.4 친정 잘 챙기는 남편

친정식구와의 관계에서는 경제적인 관계도 많았는데 대부분은 부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선물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매달 정기적으로 친정에 용돈을 송금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친정에 잘 하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참여자들은 많이 느끼고 있었다.

F: 매달 집으로 보내는 용돈 보내는 거 그거 있어요, 우리 엄마도 고마워하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서.

C: 우리 집에도 참 잘 했어요, 또 제가 집에 어떻게 하든 간섭도 안하고

3.6.5 부대끼는 장서관계

그러나 고부관계도 그러하듯이 만나는 횟수가 많거나 동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장서관계도 부대끼기도 하였다. 참여자B가 결혼 후 장기 비자로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을 갖기도 했던 친정엄마는 얼마 전부터 자녀양육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집에서 마주치게 되자 남편과 친정엄마 사이에는 마찰이 생기기도 하였다.

B: 물론 제가 육체적으로는 편하긴 해요. 근데 또 사위랑 잘 맞아야. 저희는 약간 안 맞는 편이에요. 저희 엄마랑 남편이랑. 성격이 안 맞는 편이 아니라. 생활습관도 다르고, 애들한테도 해줄 때도 한국처럼 똑같이 못해주는 점에, 애들 아빠는 애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깐 애들한테 피해가면은 바로 얘기해요. 저희 엄마가 예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점도 있잖아요.

3.7 결혼은 나의 힘: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

참여자들은 한국어나 한국 문화도 열심히 배우고 직장을 구하기도 하는 등의 사회활동이나 자기계발 노력도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남편과 가족이었다. 어떤 참여자는 남편이나 자녀, 시댁 식구들과 더 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 배웠다. 다른 참여자는 남편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빨리 올 것이고, 그 때 자녀들과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국어와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D: 한국생활 풍습 어떻게 하는지. 결혼한 후에 더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다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전공만 알아서 결혼생활 말 잘 몰라요. 결혼한 후에도 또 한국어를 배우는 건 가족위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날 어떻게 이해해주겠냐 그걸 생각하거든요.

B: 내가 한국어 공부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저희 남편이 나이 많잖아요. 이제 직장생활을 얼마 못하니깐 그럼 가장 제가 해야 되잖아요. 또 자연대로면 본인이 더 먼저 돌아가시겠죠? 저보다? 애들 아직 어리니깐. 저는 그럼 가장으로서 애들 양육, 교육 사회생활 여러 가지 혼자 감당해야하니깐 한국에서 한국어를 모르면 솔직히 민주주의에서는 바보면 못 살고 똑똑하면 살 수 있고 그런 것 많잖아요

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다른 보통 일반 이주 여성이면 한국어 잘 모르고 일을 하면 그냥 노동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애들 키우면서 좋은 직장가고 싶어요

3.8 결혼생활을 넘어 공동체로

3.8.1 꼭꼭 숨어있었던 사회적 서비스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어교육과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특히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참여자들이 더 많이 경험한 바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생긴 것이 10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혀 아무런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기도 했다.

A: 근데 정보가 없어요. 저는, 만약에 중매 업체 통하면 다 알려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 잘 몰라. 저도 한국에 대해 정보가 없어요, 정보 없어요. 남편도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검색해서 알고 그 때는 완전히 몰라요. 진짜로 많이 힘들었어요.

B: 그때는 배울 곳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애들이 배우는 영어 단어 책 있잖아요. 그거 한쪽에는 한국어 번역되어있고 한쪽은 영어로 그러면 영어보고 한국어 배웠어요.

3.8.2 후배들 도와주는 ‘한국 아줌마’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한 참여자들은 이제 자신들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하였으니 막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민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이는 경험한 자만이 알게 되는 슬픔과 깨달음, 그리고 기쁨과 의미를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후배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제 참여자들은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에서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한국 아줌마’가 되고자 했다.

B: 저는 한국에서도 누구보다 선배고 또 어떤 게 어려운건지 또 어떻게 살면 잘 좀 나아질 수 있는 생활인지 그런 거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후배들 보면 안쓰러운 사람도 많고 또 불쌍한 사람도 많고 어떨 때는 한심한 친구도 많고 그니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강해요

참여자들은 어려움과 힘들도 경험하고 이민자인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의 슈퍼 아줌마처럼 뒤편지 잘해내기를 기대하는 남편에게 서운하기도 하였지만 자식과 남편, 본인을 위해 이 땅에서 잘 살아내야겠다는 힘을 갖게 된 결혼생활의 경험을 다른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원조 행동을 하면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의 가정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문화가정, 나아가 한국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다.

4. 결론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결혼생활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본 연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경험의 의미를 8가지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결혼이민자인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결혼생활의 의미는 사랑에 끌려 결혼한 참 좋은 사람과 낯설고 두렵고 부대끼면서 한국 아줌마처럼 살아나가기였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을 도구적인 것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피해자로, 다문화가정은 역기능적이어서 사회적 원조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편견과 전형화와 배치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을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긍정적인 관점의 홍보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결과가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부정적 전형을 벗어나 차이를 지녔지만 일반적인 한국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 바라보는 통합의 관점에서 후속연구와 관련서비스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결과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자들은 남편과 결혼한 동기로 여러 다양한 형태의 끌림을 경험했다. 현지로 찾아간 남편이 구애를 하였던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남이 주선되었던 상관없이 참여자들은 연민의 형태로든 성실함과 신뢰감의 형태로든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경제적 목적으로 결혼을 도구화한 여성이라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전형화[3][4]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결혼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한 자신의 삶의 향상[6]으로 보는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전형화와 편견을 벗어나도록 하는 더 많은 후속 연구와 관련 서비스의 마련을 함의하는 바이다.

둘째, 연구 참가자들이 결혼생활을 통해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우선은 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참가자가 이해한 것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도 해당되지만 결혼 전 오랜 기간 남성 혼자 살았던 삶의 흔적 모습도 참가자가 보기에는 궁색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은 늘 외롭고 편견과 차별을 수반하는 두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일민족의 신화가 있는 한국사회에서 타민족으로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 특수한 위치, 소외되고 경계선적인 특수한 위치에 처한 결혼이민자가 사회문화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2]와 일치한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녀를 통해 위로를 받고 외로움을 덜게 되었다. 이제 참가자는 자녀로 인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녀는 참가자 가정에 찾아온 선물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참가자로선 매우 버거웠다. 우선은 한국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엄마로 인해 자녀가 상처받을까 염려되었고,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사회에서 자국출신이 아닌 엄마로서 느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이러한 양가감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사회적 개입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선은 기존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관점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에게도 다문화가족 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참가자들은 결혼생활을 통해 시부모와의 관계와 친정부모와의 관계, 모두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결혼 이민자이기 때문에 고부관계에서 문화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오히려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참가자 모두가 열린 태도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기도 했다. 다른 한편 친정부모는 참가자에게 늘 아련한 대상이었고, 결혼 후에도 만나고 경제적인 교류도 하면서 관계를 지속해나갔다. 그리고 친정부모에게 잘하는 남편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매우 감사했다. 그런데 친정부모 역시 참가자와 같은 집에 살게 되는 경우에는 남편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는데, 이런 결과를 통해서 고부관계나 장서관계 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상황에서 서로를 대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

적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부부뿐만 아니라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해 참 좋은 사람이지만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한국아줌마처럼 살아내기를 바라는, 참여자들이 외국 출신이라는 차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가장 의미 있는 결과이다.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결혼생활 내내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결혼생활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참가자가 외국에서 온 이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아줌마처럼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한편으로는 기존 연구[9]에서 드러난 결혼이민자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결혼 후 참여자들의 마음이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결된 것이다. 참가자가 남편이 세세히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한국의 슈퍼 아줌마들처럼 잘 살아내기를 기대할 때 참가자가 얼마나 서운한지, 그리고 왜 서운한지에 대한 남편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참여자들이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만을 기대하지 참여자의 출신 국가에 대한 이해나, 참여자가 외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하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관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특히 고정된 성역할 개념을 극복하도록, 그리고 배우자에게 무조건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한국아줌마로 살아가기만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관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참여자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생활 지식들을 비롯하여 결혼이민자가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결혼생활, 특히 남편을 통해 참가자는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나이가 많은 남편을 둔 경우 참여자는 은퇴하게 될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남편의 은퇴가 빠른 상황이 참가자가 가정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참여자들이 이 사회에 더 잘 적응하도록 자신을 개발

할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가 참여자의 이야기를 자료로 하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도출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즉, 참여자들은 나이차이라는 주어진 현실을 보다 탄력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곱째,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을 넘어 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본인이 이 사회에 처음 와서 막막하고 외로웠던 경험들, 사회적 서비스를 찾기 어려웠던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어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홍보를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입안과 서비스를 진행할 때 당사자인 결혼이민자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또 그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멘토, 프로그램 기획자와 진행자, 정책 자문단으로 활동하도록 한다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볼 때 참여자들은 외국 출신이라는 분명한 차이를 지녔지만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한국 아줌마로서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차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아줌마로서의 삶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을 힘들어했다. 이는 단일민족 신화와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위에서 제시한 각 범주에 따른 여러 논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차이를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정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어린이 시기에서부터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양성과 차이 존중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그 프로그램들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양성 존중사회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점점 양성평등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역시 다문화 가정 남성들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2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 [2] W. S. Choi, "A Study on the Social-cultural Adaptat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Women*, Vol. 46, No. 1, pp.141-181, 2007.
- [3] J. Y. Choi, I. Y. Choi, "Cultural Sociology's Approach toward Immigrant Women: Focusing on Methodological and Ethical Issues", *Culture and Society*, Vol. 4, pp. 147-205. 2008.
- [4] N. Constable, "Introduction: Cross-Border marriages, Gendered Mobility, and Global Hypergamy", N. Constable (ed.).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5] Piper, Nicola. 2006. "Gendering the Politics of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 1133-1164.
DOI: <http://dx.doi.org/10.1111/j.1747-7379.2006.00006.x>
- [6] O. H. Chae, E. J. Han, B. H. Song, "A Study on the Korean Family Life and Marriage Motives, Support, and Experience of Cambodian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Husband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6, No. 4, pp.111-129, 2012.
- [7] K. S. Ko, 'Experience of Foreign Wives Who Have Been Abused by Their Family', *Victim Research*, Vol. 18, No.1. pp. 2010. 229-259.
- [8] O. N Kim, "A Study on Marital conflicts and Abuse of Immigrant Women-Focusing on Socio-Cultur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18, pp. 33-76, 2006.
- [9] H. R. Sung, "The Influence of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Acceptance of Their Wives' Culture on Their Wives' acculturation and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Daegu and Gyeongbuk A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 17, No. 2, pp. 219-239, 2011.
- [10] M. H. Byun, J. J. Kang, "Factors of Married Couples Influenc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2, pp. 127-141, 2010.
- [11] S. J. Won, I. U. Song, "The Effect of Personal, Cultural, and Social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 Family welfare*, Vol. 16, No. 2, pp. 95-113, 2011.
- [12] H. Chung, J. Y. Lim, "Comparison of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Immigrant Wives and Korean Wives of Korean M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9, No. 5, pp. 33-48, 2011.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1.49.5.033>
- [13] A. J. Lee, Y. S. Choi, "Marital Conflicts and Expectations to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among Immigrated Women Focusing on Typology of Cultur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0, No. 1, pp. 71-90, 2011.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1.20.1.071>
- [14] H. S. Kim, K. S. Kim, "A Study of Related Variables to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Korean Family Relations*, Vol. 16, No. 2, pp.59-86, 2011.
- [15] S. H. Park,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table Marriage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Focused on Mediated Effect of a Cultural Adaptation Attitud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 1, pp.89-109, 2011
- [16] A. Giorgi,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박 소 영(So-Young Park)

[정회원]



- 1991년 8월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 2005년 8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가족복지